



두산 이용찬이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팀의 스프링캠프가 차려진 일본 가고시마에서 1일 중도 귀국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용찬을 대신해 롯데 송승준(아래사진)을 WBC 대표팀에 새로 발탁했다. 스포츠동아DB

이용찬도 아웃...WBC 부상과의 전쟁

스프링캠프 훈련중 팔꿈치 통증 검진차 귀국 대표팀 스윙맨 평균...송승준 합류 긴급처방 두산 김진욱감독 선발진 구상도 차질 불가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이 또 다시 부상 암초를 만났다. 두산은 1일 일본 미야자키 스프링캠프에서 훈련 중이던 투수 이용찬(24)이 팔꿈치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일시 귀국해 정밀검진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야구위원회(WBC)는 이날 이용찬 대신 롯데 우완 에이스 송승준(33)을 WBC 대표로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용찬의 부상은 WBC 대표팀과 두산에 모두 큰 타격이다. 지난해 풀타임 선발로 활약하면서 10승11패, 방어율 3.00의 좋은 기록을 남긴 그는 이를 발판으로 WBC 대표팀에도 승선했다. 프로 데뷔 초반에는 마무리투수로 활약한 경험도 있어 대표팀에선 선발과 볼펜을 오가는 스윙맨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두산 측에 따르면, 이용찬은 캠프 합류 이후 팔꿈치 통증으로 훈련에 어려움



을 겪었고 결국 귀국을 결정했다. 그는 서울 김시진감독 외과에서 정밀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이용찬의 부상으로 대표팀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31일 부상 소식을 접한 대표팀 코칭스태프와 KBO는 곧바로 대체선수 물색에 나섰다. 이용찬의 이탈은 가뜰이나 부상자가 속출했던 대표팀에 뼈아픈 소식이지만, 부상 중인 선수를 승선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

표팀 코칭스태프는 이용찬을 대신해 송승준을 발탁했다. 이용찬의 교체로 대표팀은 최초 발표한 엔트리에서 벌써 7번째 선수 교체를 단행하게 됐다. 송승준은 지난 시즌 7승(11패·방어율 3.31)에 그쳤지만,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태극마크를 단 경험을 갖고 있다.

이용찬의 부상은 두산에도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두산 김진욱 감독은 니퍼트~히메네스~노경은~이용찬~김선우로 선발투수진을 구상해왔다. 김 감독이 "우리가 삼성에 이어 2위를 할 수 있는 전력이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낸 것도 바로 탄탄한 선발진을 믿어서다. 정밀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면 두산은 스프링캠프를 거치는 동안 대체 선발자원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이는 이용찬 자신이다. 1일 중도 귀국한 그는 "태극마크가 나에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꼭 WBC에 가고 싶었다. 팔꿈치가 아픈 상황이지만, 정밀검사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 뿐이다. 서두르지 않고 지켜보겠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나타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송승준 제발 무사히...” 롯데 김시진감독의 고민

강민호·손아섭·정대현·전준우·송승준
전훈 흔들릴뿐이지만 나라 위해 차출 허락

“어떡합니까? 내 운명인데...”
롯데 사령탑이 되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또 선수들이 품을 떠나간다. 이상하게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대체선수 발표 때마다 롯데 선수들이 발탁되고 있다. 추신수(신시내티)의 대타로 외야수 손아섭이 차출되더니, 이용찬(두산)을 대신해 우완 에이스 송승준이 또 대표팀으로 불려갔다.

WBC 대표팀 류중일 감독은 31일 사이판에서 롯데의 전지훈련을 지휘 중인 김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이용찬의 부상 소식을 알리고, ‘송승준을 데려가고 싶다’는 뜻



롯데 김시진 감독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류중일 감독의 송승준 차출 요청을 고민 끝에 수락했다. 김 감독은 송승준이 부상 없이 WBC를 잘 치르고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사진 제공 | 롯데 자이언츠

을 타진했다. 그러나 김 감독은 “송승준만큼은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주전 포수 강민호, 마무리 정대현,

외야수 손아섭 전준우를 이미 대표팀에 내준 상황에서 송승준마저 없다면 전훈 자체가 흔들린다는 생각에서였다. 게다가 김 감독은 올해 처음 롯데 지휘봉을 쥐었다.

그러나 사람 좋기로 소문난 김 감독은 말은 그렇게 했어도 고민을 거듭했다. 류 감독의 처치를 떠올리니 마음이 곱했다. 사이판에 머물던 배재후 롯데 단장과 고백 하루 동안 상의한 끝에 1일 “쿨하게 보내주자”고 결정했다.

나라를 위하는 길이기엔 롯데가 양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당사자 송승준이 대표팀 합류를 강하게 희망했다. 이에 김 감독은 1일 류 감독과 다시 통화해 “부상 없이 잘 돌려보내달라”고 승낙의사를 전했다. 마침 송승준은 2일 첫 라이브 피칭에서 최고구속 143km를 찍어 주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한편 송승준은 대표팀이 이번 WBC에서 4강 이상의 성적을 올리면 올 시즌 후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는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 @matsr21

윤석민의 WBC 예감이 좋다

20일 앞당겨 시작한 볼펜피칭 컨디션 굿
2회대회때 경험한 WBC 공인구 적응 OK

“느낌도 좋고, 페이스도 좋다.”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대표팀에서 투수진의 기동 역할을 해야 하는 윤석민(27·KIA)이 자신감을 내비쳤다. 미국 애리조나 서프라이즈에서 KIA의 스프링캠프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그는 1일 “아직 시작단계지만 볼펜피칭의 느낌이 좋다”며 “생각했던 대로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첫 볼펜피칭에 돌입한 뒤 이미 2차례의 볼펜피칭을 소화한 윤석민은 “아직 날짜를 정해놓고 볼펜피칭을 하진 않는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 볼을 던지고 있는데 느낌이 좋다”며 “공인구에 대한 적응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표팀 일정에 따라 예년에 비해 1개월 가량 페이스를 빨리 끌어올려야 하는 윤석민은 볼펜피칭 일정도 지난해보다 20일 정도 앞당겼다. 특히 주목할 것은 WBC 공인구인 ‘볼링스’ 제품에 대한 자신감. 윤석민은 “2009년(제2회 WBC 때) 던져본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볼링스 제품은 국내 공인구에 비해 둘레가 1~2mm 정도 작은 데다, 가죽이 미끄럽고 실밥이 밍밍하다. 야수들에 비해 성격이 민감한 투수들은 낯선 공에 대한 적응 역시 쉽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2009년 제2회 WBC를 통해 이미 볼링스 제품을 경험한 윤석민은 “그때처럼 이번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석민은 제2회 WBC 4강전에서 메이저리거들이 즐비한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6.1이닝 2살점포 역투해 승리투수가 되는 등 4게임에서 16이닝(2자책점)을 던지며 2승, 방어율 1.13의 잔물 투구를 펼친 바 있다.

2013년은 윤석민에게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해다. WBC에서의 활약은 물론이고 팀 우승에 보탬이 된 뒤 자신의 오랜 꿈인 빅리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그는 말을 아꼈다. “지금은 눈앞의 WBC와 시즌만 바라보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이병석 국회부의장, 대한야구협회장 선출



국회부의장인 새누리당 이병석(61·사진) 의원(포항 북구)이 앞으로 4년간 대한야구협회(KBA)를 이끌어갈 새 수장으로 선출됐다.

이 부의장은 1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KBA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16명(재직 대의원 18명) 중 과반수 득표에 성공해 제21대 회장에 당선됐다. 이날 선거에는 이 신임 회장을 비롯해 강승규(50) 현 회장, 이형진(59) 안양시야구협회장, 김은영(44) 엘엔케이글로벌 대표이사 등 4명이 출마했으며, 대의원들의 합의 하에 후보들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신임 회장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에 진출한 뒤 2012년 19대 총선까지 포항 북구에서만 내리 4선을 성공한 중견 정치인으로 지난해 개장된 포항야구장 건립에도 힘을 쓴 인물이다. 그는 이날 신임 회장에 선출된 뒤 “110년 역사의 아마추어야구가 한국야구의 뿌리로 든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체육 발전의 기틀을 세울 입법 활동을 우선순위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고교야구 주말리그제에 대해 그동안 지적돼온 문제점을 보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아마추어 지도자 및 심판 비리에 대해서도 “아마추어 지도자 등의 급여가 제도적인 결합으로 사적인 부분으로 취급돼선 안 된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찾을 계획을 시사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KBO다이러리·THE BASEBALL 연간구독 패키지 출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2013년 KBO 다이러리와 야구전문 월간지 ‘THE BASEBALL’ 연간구독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 2009년 7월 창간한 ‘THE BASEBALL’은 야구전문기자들의 심층취재기사로 꾸며지는 월간지다. 다이러리는 구단별 화보, 2013년 프로야구 주요 일정, 팬트리레이스 일정 등으로 제작됐다. KBO는 야구용품전문쇼핑몰인 위넵 홈페이지(http://www.wefan.co.kr)에서 패키지 상품을 3만5000원에 한정 판매한다.

ESPN “금지약물 의혹 A로드, 은퇴설 부인”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은 1일(한국시간) 금지약물 복용 의혹에 휩싸인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알렉스 로드리게스(37)가 자신의 은퇴설을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미에미 뉴 타임스’는 로드리게스가 성장호르몬,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이 함유된 금지약물을 복용해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로드리게스가 잔여 연봉(1억1400만 달러)을 포기하고 현역에서 은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편집 | 안도영 기자 ydalove@donga.com 트위터 @sd_doo2

‘1인 캠프’ 차린 박희수, 급할수록 돌아간다

한국과 다른 파듯한 대만기후에 의욕 고취
“예열부터 천천히” 오버페이스 철저히 경계

과욕은 금물이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볼펜의 핵’ 박희수(30·SK)는 지난달 30일 대표팀 양성문 수석코치 겸 투수코치와 함께 대만으로 출국해 ‘1인 캠프’를 시작했다. 현재 성균관대 야구부가 전지훈련 중인 자이언트 도류구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는 소속팀의 체성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돌아왔고, 이후 쉼없는 문학구장에서 훈련을 해야만 했다. 한국과 대비되는 대만의 따뜻한 기후는 박희수의 의욕을 고취시켰다. 그러나 양 코치는 이런 박희수의 페이스를 서서히 끌어올

릴 계획이다. 날씨가 좋다고 오버페이스를 할 경우,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박희수는 ‘예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운드에 설 수 있는 몸을 만드는 단계다. 양 코치는 “따뜻한 곳으로 오면, 보통 투수들이 던지는 데 욕심을 낸다. 이럴 때는 4~5일 정도는 톱토스 위주로 훈련을 해서, 어깨의 힘을 충분히 키워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희수는 이미 미국 애너하임 재활캠프에서 50m 톱토스까지 소화했고, 출국 전날(1월 29일)에는 문학구장에서 30개의 하프피칭을 실시했다. 대만에선 이번 주까지 톱토스를 한 뒤, 다음 주중 하프피칭에 들어갈 계획이다.

양 코치는 “일단 몸을 충분히 만들고 나면, 이후 볼펜피칭 등으로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 @setupman11



SK 이만수 감독이 설정한 체성분 기준에 미달해 팀의 스프링캠프에 합류하지 못한 박희수는 대만에 1인 캠프를 차렸다. 박희수를 1대1로 지도 중인 양성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수석코치는 서둘러 말 것을 주문했다. 스포츠동아DB